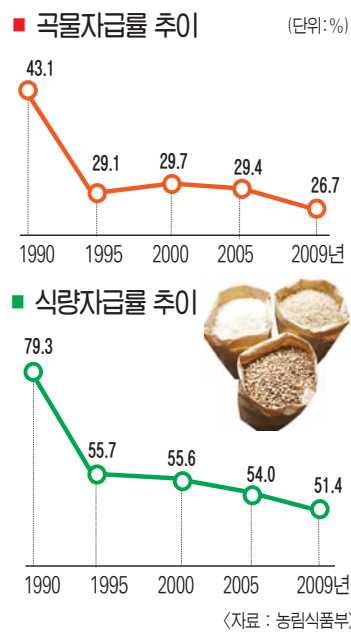


## 치솟는 국제곡물값... 지구촌 식량전쟁 식량안보 적신호 켜졌다

### 51% 불과한 식량자급률 상향 시급

국제 곡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치솟으면서 식량 안보에 적신호가 켜졌다.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곡물을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국제 곡물 가격 상승은 국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결국 서민들의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식량자급률을 높여 곡물의 안정적 공급 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0%, 콩은 18%를 생산하는 식량공급자이다.

하지만 경기변적은 2008년 31만 1000ha에서 2009년 말 30만1000ha로 줄어들었고,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에 육박할 정도로 고령화가 심해 일손이 많이 들어가는 대체 작물 개발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식량자급률 법제화 및 상황 조정해야”=농업 전문가들은 식량자급률 목표를 관련법에 명시하고 단계적으로 식량자급률 목표 수준을 높여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원주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의장은 최근 “중장기적으로 식량자급률 달성 목표를 법으로 규정하고 단계적으로 식량자급률 목표 수준을 높여 설정하는 등 구체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쌀 자급률은 100% 이상을 유지해야 전체 식량자급률 향상이 가능하다는 게 농민단체측 주장이다.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권에 해당하는 국내 식량자급률을 지탱해주는 게 쌀인데, 쌀 수급균형을 위해 생필품인 곡물 자급률 목표치를 25.0%로 낮춰 잡은 상태다. 식량자급률도 54%로, 2007년의 65.9%에 비해 크게 낮춰 잡았다.

장덕기 전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자급률이 낮은 품목을 대체할 수 있는 품목별·작목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온난화에 대비한 미래형 작물 재배 정책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교정의 봄... 발 담가볼까

24일 오후 광주시 북구 전남대 교정에서 여학생들이 연못에 발을 담근 채 따스한 봄 햇살을 만끽하며 담소를 나누고 있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전남도, 해외 식량기지 첫 개척

### 필리핀 곡물기지 건설 참여...옥수수 年 30만톤 확보

전남도가 곡물가격 폭등에 대비해 정부가 추진중인 필리핀 해외 곡물 생산 기지 및 복합산업단지 건설에 참여키로 했다. 옥수수·밀 등 국제 곡물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데 따른 식량 위기 대처 방안의 하나로 추진하는 것으로, 전남도가 해외 식량기지 개척에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식경제부가 농림수산식품부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필리핀 복합산업단지(MIC·Multi Industry Cluster) 조성 시범사업’에 전남도 출연법인인 전남사료를 통해 사업에 참여키로 했다. 정부는 필리핀에 민·관 협력 방식

으로 3만ha 규모의 복합산단을 조성하고 국내 민간 기업이 직접 재배하거나 현지 농가들을 통한 계약재배 및 산지 직접 수집을 거쳐 연간 30만톤 규모의 옥수수를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옥수수의 경우 국내 배합사료의 70%를 차지하지만 자급률은 4.0%에 불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형편이다. 국제 곡물가가 치솟으면서 옥수수

의 경우 지난 1월 가격이 t당 323달러로, 지난해 같은 시기(t당 247달러)보다 76달러나 오른 상태다.

이대로라면 지난해 8월 이후 가격 인상이 없었던 국내 배합사료 가격 상승이 불가피해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들의 부담도 커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전체 3만ha의 10% 수준인 3000ha는 국내 민간 기업이 직접 개간토목 하고 계약재배(1만2000ha)나 산지 직접 수집(1만5000ha) 방식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 방안을 마련, 국제 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한 식량 위기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복합산단에 차관과 무상원조 방식으로 해당 지역의 도로·소수력발전소·의료시설 및 교육센터 등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이 과정에서 10억원을 출연, 설립한 ㈜전남사료를 민간 기업 컨소시엄에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해외 사료기지 개척에 나서게 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전완준 화순군수 직위상실형 확정

### 전남 4·27 재보선 두곳으로 늘어

전완준(53) 화순군수에 대한 직위상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전남지역 4·27 재·보궐선거 대상지역이 순천(국회의원)을 포함해 두 곳으로 늘어났다. <관련기사 3면>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4일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 군수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군수는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관계자 등 23명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지난 2008년 5월 화

순지역 변영희장 6명에게 모두 70만 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전 군수는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선거법에 따라 군수직을 상실해 오는 4월 27일 재선거가 치러진다.

이에 따라 전남 4·27 재·보궐선거 대상 지역은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순천과 함께 두 곳으로 늘어났다.

한편, 대법원 3부는 이날 황주홍(59) 강진군수에 대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 군수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쟁 후보의 비판을 반박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도록 공무원에게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지만,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확정돼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또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한중(57) 전남도원수는 이날 항소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 받고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주목된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장병우)는 이날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받아들였다. 김 의원은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된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변호사 개업인사

저는 이번에 광주지방법원 형사단독 판사를 끝으로 법원을 떠나 변호사로 새출발 하게 되었습니다.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 사석고등학교 14회 졸업
- 제36회 사법시험 합격(1994년)
-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졸업(1995년)
- 사법연수원 제26기 수료(1997년)
- 공판업무
- 광주지방법원 민사합의부 및 형사합소부 판사
-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형사단독 판사
- 광주고등법원 민사부, 형정부, 형사부 판사
- 광주지방법원 형사단독 판사

### 변호사 김도근 올림

- 업무개시 : 2011. 2. 21. ■ 업무주소 : 광주 동구 지산동 342-26 비른법조타운 2층
- 대표전화 : (062)227-6200 팩스 : (062)233-0099
- 개업소년 : 2011. 3. 21. (월) 오후 5시부터

## 예술작품으로 빛나는 이태리의 정통 명품 가구 광주에서 만나십시오!



뮤제오에서 최고의 가치를 만나십시오!

세계 명사들의 사랑을 받은 이탈리아 명품가구-

뮤제오는 이탈리아 현지에서 수개월의 까다로운 공정을 거쳐야 만날 수 있는 장인들의 정통수공예 기법으로 만든 가구로 작은 소품 하나하나 유럽의 고성을 그대로 옮긴듯한 뮤제오 만의 차별화된 컨셉과 트렌드로 개개인의 취향에 맞는 기쁨있는 실내를 연출하십시오!

### TV 인기드라마 협찬업체

SBS “대물” / KBS2 “꽃보다 남자”  
KBS “아가씨를 부탁해” 등 다수

